

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

-先秦에서 清末까지-

李庚子**

< 목 차 >

1. 머리말
2. 孝悌를 통한 질서의 확립
3. 德을 통한 품성 수양
4. 立志를 통한 자아 확립
5. 맺음말

1. 머리말

교육의 일차기관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가정의 문화를 배우고 사물의 바른 질서를 배우며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 양식을 먼저 익힌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럴 때 자녀는 올바른 가정교육을 기초로 학교,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최초의 자녀교육의 장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학교붕괴’, ‘교실붕괴’, ‘학급붕괴’ 등 다양한 용어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미 10여 년 전에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32-B00336).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는 지금의 교육문제를 공교육의 탓으로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공교육의 문제에 앞서 근본적인 가정교육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교육만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일 수 있다.

학교교육 체계가 미흡했던 과거에도 명문가에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양했다. 이러한 것에는 그들만의 비결이 있었다. 그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정이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통해 칭송받고 소위 '명문가' 반열에 오른 집안이나,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집안을 보면,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욕구가 공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명문가의 가정교육은 그 목적과 성격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몇 천 년 또는 몇 백 년 동안 이어진 명문가의 가정교육에는 풍부한 교육경험, 전통적인 가정교육 사상과 교육방법이 존재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명문가의 가정교육에는 현대의 가정교육에 있어 지침이 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문제에 중요한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명문가에서는 자녀들이 남다른 재능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바로 '가문의 보배'가 되어 家訓¹⁾, 家書²⁾ 등의 형태로 대대로 전해졌다. 명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

1) 家訓은 家誠, 家範, 家法, 家規, 遺訓, 世範, 規範, 庭訓, 勸言 등으로 불리며,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 중 家規와 家法은 漢, 魏에서 唐, 宋 때까지 관리집안에서 계승해 내려오던 家訓이다. 家訓은 가정과 함께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계속 전해져왔으며,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러한 家訓의 성격과 형식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家訓은 특히 명문가에서 가정교육의 교과서로 가정이 후세대에게 윤리도덕을 전파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家訓은 자녀들에서 인격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중국의 고대가정교육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2) 家書란 家信으로 杜甫는 일찍이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만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러한 家書는 漢, 魏, 六朝시기에 가정교육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家書는 글을 쓰는 사람의 진실

손들이 어렸을 때부터 文香 속에 자라도록 하면서도 지식에 앞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을 중시하였다.

‘명문가’의 사전적 의미는 명문(문벌이 좋은 집안)에 속하는 집으로 역사성과 원칙을 가지고 인재를 배출한 집안이다. 이에 대해 조용헌은 우리나라 명문가의 정의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첫째, 역사성이다. 역사를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집안의 역사와 사회적 기여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집안이 오랫동안 그 특징을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도덕성이다. 고택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들은 집안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념이 있다. 그 철학과 신념은 자기 자신에 엄격한 반면 타인에게는 관대한데, 이 정신이 바로 선비정신이다. 셋째, 인물이다. 명문 고택을 유지하는 집안들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그 집안을 일으킨 중시조들은 당대에 이름을 드날린 인물들이다. 현재에도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사들이 많다.³⁾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문가’의 개념적 정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존경할만한 자녀교육으로 전통을 보유하는 가문, 명문가로서의 명성은 오래되지 않았으나 고유의 자녀교육 방법을 통해 존경받을 만한 업적이나 특정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가문을 말한다. 여기서 명문가의 가정교육이란 꼭 지위로서 명문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정에서 교육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고 현대교육의 방향이나 내용 및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가르칠 것인가? 정확한 인생관을 확립해줄 것인가? 는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문제였다. 家訓은 고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본 연구는 명문가에서 家訓, 家書 등을 통해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감정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진실한 감정으로 자식을 감화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컸다.

3) 조용헌,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참조.

2. 孝悌를 통한 질서의 확립

유가의 사상이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스며있는 고대 중국의 가정교육에서 중시된 것은 '孝悌'이다.⁴⁾ 가정에서는 孝悌를 통해 먼저 윤리질서를 바로 잡고 가정을 조화롭게 하여, 이를 사회로 확대시켜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孝悌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체계와 이를 유지하는 질서를 깨달았다. 孝와 悌는 修身의 근본이면서 가정윤리와 국가윤리의 핵심이다. 고대 가정에서 이러한 孝悌를 강조한 것은 부모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천하를 대하도록 하여 천하가 마치 한 가정인 것처럼 大同世界를 꿈꾸는 정치적 의도와 이러한 체계 질서를 알고 이용한 의도 내포되어 있다.

'孝'라는 글자는 商代의 占辭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占辭에서 地名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다. 商代 금문 중에 孝라는 글자가 人名으로 사용된 예도 있으나 孝라는 글자의 출현만으로 상대 사람들에게 孝의 관념이 있었다고 증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서주에 이르러 주대의 金文, 《周書》, 《詩經》 등의 저작에 모두 孝와 관련된 많은 기재가 있어 오래전부터 孝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孝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沈善洪·王鳳賢은 크게 두 가지가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혈연을 토대로 한 '親親'관계이다. 이러한 혈연을 토대로 하는 '親親'의 정은 후에 '孝'를 유지하는 유대가 되었으며, 孝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을 번영시키고 지속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親親' 관계만으

4) '孝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孝悌'의 일차적인 어의는 상하간의 종적인 혈연관계와 같은 세대간의 횡적인 혈연관계의 결합으로 바로 인품과 德性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상의 관념이 漢代에 이르러 鄉官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향촌사회에서 윤리도덕행위와 사회교화를 담당했다(이경자, <漢代의 孝教政策에 관한 연구>(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2호, 2005, 78쪽 참조)). 본 연구에서의 孝悌의 용어는 일차적인 어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로 '孝'라는 도덕관념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했기에 '孝'의 형성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둘째, 개체가정경제의 형성 및 가정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나타나면서 孝가 생겼다는 것이다. 씨족사회에서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씨족 전체의 일로 자녀는 부모에 대한 그 어떤 특수한 책임과 의무가 없었다. '親親'은 주로 전체사회에 대한 것이었다.⁵⁾ 그러나 개체가정이 생긴 후, 夫婦 및 그 자녀가 독립된 경제단위를 형성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여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생겼고, 더불어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며 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었다. 가장인 부친은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자녀를 지배할 권리가 있었으며, 자녀 또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어 '孝'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孝'의 대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현세의 부모에 대한 것으로 즉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孝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 선조에 대한 것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孝이다. 현세부모에 대한 孝는 봉양, 존경, 복종 등을 포함한다. 孝의 대상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孝는 시대마다 그 의미를 조금씩 달리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에서 중시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孝悌'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대표 덕목으로서 특히 중국의 전통 가정교육에서 강조되었다. 중국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유가사상, 유가사상의 핵심적 가치인 仁도 결국은 孝와 悌로 연결된다. 그래서 《論語·學而》에서는 “孝와 悌라는 것은 바로 仁을 행하는 근본이다”라고⁶⁾ 언급하여, 仁을 실천하는 것으로 중시되었다. 孝는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경중을 의미하고, 悌는 형제 및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우애를 말한다. 《尚書·康誥》에서는 “크게 악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니 하물며 不孝하고 우애롭지 않은 자에 있어서 어떻게겠는가”라고⁷⁾ 하였다. 부모에게 不孝하는 자와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한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하여 죄 중에서 큰 죄로 여겨 인륜도덕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顏氏家訓·

5) 沈善洪·王鳳賢, 《中國倫理學說史(上)》(浙江人民出版社, 1985), 56쪽 참조.

6) 《論語·學而》: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7) 《尚書·康誥》: 元惡大憝, 矧惟不孝不友.

兄弟》에서 “兄弟란 형제는 나누어 가졌으나 그 기가 연결된 사람이다”고⁸⁾ 했다. 즉 형제지간에는 혈기가 상통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육 친정관계로 서로 우애있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들의 자姪도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질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종족의 자제들이 소원해지고 엷어진다. 종족의 자제들이 소원해지고 엷어지면 僮僕들도 원수나 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고 나서 길 가던 사람이 모두 그들 얼굴을 짓밟고 그 마음을 밟는 모욕을 줄 때면 누가 이를 구제해 주겠는가?”라고⁹⁾ 하여 형제지간의 우애를 강조하였다. 南宋의 趙鼎(1085-1147)은 《家訓筆錄》에서 “집 안에서 부모에 대한 孝와 형제지간의 우애에 대해 먼저 힘써야 한다(閨門之內, 以孝友爲先)”고 하였다. 이후 明代의 학자인 孫奇逢(1584-1675)도 孝悌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부자형제가 단결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몰락은 孝悌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孫奇逢은 《孝友堂家訓》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담고 자식은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자식이 자식답지 않고 형이 형답지 않고 아우가 아우답지 않으면 ...점복의 기운을 섬할 필요조차 없다(父父子子, 子不子, 兄不兄, 弟不弟...亦不必卜之氣數也)”고 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 영향이 좋은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웃어른의 언행은 아랫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가정윤리적 측면 또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가정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개념으로 孝悌를 강조하였다.

이후 孝悌는 가정과 가족 내에서 인륜관계의 규범으로 전수되고, 이러한 규범원칙을 사회에 확대한 忠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孝와 忠의 관념이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¹⁰⁾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의 체계를 지탱해주는 孝와 悌가

8) 《顏氏家訓·兄弟》: 兄弟者, 分形連氣之人也.

9) 《顏氏家訓·兄弟》: 兄弟不睦, 則子姪不愛; 子姪不愛, 則羣從疎薄, 羣從疎薄, 則僮僕爲僕敵矣. 如此, 則行路皆踏其面而踏其心, 誰救之哉?

10) 특히 과거, 孝라는 덕목은 단순한 가정윤리가 아니라 사회·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 신앙의 차원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孝가 春秋戰國시대를 거쳐 漢代에 이르러 가정도덕의 범주를 벗어나 하나의 정치윤리개념이 되었다. 한대 통치자들은 孝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孝는 봉건가장제 전제통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흔히 유가에서 “가정에 孝자가 있으면 조정에 들어가 忠臣이 될 수 있다”고 했다. 漢代는 바로 이러한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체계를 지탱해주는 범주로 확대된 것이다. 바로 家가 國이고, 家의 아버지가 國의 임금이므로, 孝와 忠은 매우 밀접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論語·爲政》에서 孔子는 季康子에게 忠의 문제를 가르칠 때 “孝慈는 바로 忠이다”고¹¹⁾ 하였다. 공자의 학생 有子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는 “사람을 대함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에게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고¹²⁾ 했다.

이러한 내용은 家訓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北齊의 顏之推(531-591)는 《顏氏家訓·治家》에서 “무릇 風化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여 아래로 실행되는 것이며, 먼저 함으로써 윗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아버지가 인자하지 못하면 자식이 효도할 수 없고, 형이 우애롭지 못하면 아우가 공손할 수 없으며 남편이 의롭지 못하면 아내가 순종할 수 없다. 아버지가 인자한데도 아들이 거역하고 형이 우애로운데도 아우가 오만하거나 남편이 의로운데도 아내가 능멸한다면 이는 천하의 凶民으로 刑戮이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할 일이지 훈도하여 고칠 바가 아니다”고¹³⁾ 하였다. 또한 司馬光(1019-1086)의 《家範》에서는 “아버지는 慈愛로써 가르치고 자식은 孝道하며 깨우친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父慈而教, 子孝而箴, 尊敬長輩, 兄弟友愛)”고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陸游(1125-1219)는 《放翁家訓》에서 “집에서 효도와 우애를 행하고 고을에서 충성과 믿음이 나타났으며 가법이 매우 엄하고, 오랫동안 고치지 않았다(孝悌行於家, 忠信著於鄉, 家法凜然, 久而弗改)”고 했다.

이처럼 봉건제도하에서 家와 國의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孝는 忠

로 ‘孝로써 천하를 다스리는(以孝治天下)’ 것을 治國政策으로 삼아 孝를 ‘忠’의 개념으로까지 확대하였다(이경자, <漢代の 孝教育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教育問題研究》 第22輯, 2005, 48쪽 참조).

11) 《論語·爲政》: 孝慈則忠.

12) 《論語·學而》: 其爲人也孝悌,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13) 《顏氏家訓·治家》: 夫風化者, 自上而行於下者也, 自先而施於後者也. 是以父不慈則子不孝, 兄不友則弟不恭, 夫不義則婦不順矣. 父慈而子逆, 兄友而弟傲, 夫義而婦陵, 則天之兇民, 乃刑戮之所攝, 非訓導之所移也.

의 전제이고, 忠은 孝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예부터 “忠臣은 孝子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리를 말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이 성공하려면 가정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가정을 본위로 가정과 국가를 일체하는 사회구조방식으로 가정윤리는 인간관계의 핵심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孝悌를 중심으로 한 가정윤리는 가정의 조화를 지킴과 동시에 사회윤리로 확대되었다. 가정과 국가의 일체화된 봉건사회에서 가정윤리와 정치윤리, 사회윤리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였다. 그래서 역대 家訓은 가정윤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윤리와 정치윤리를 중시하였다. 《孝經》에서 “무릇 孝란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아가 임금을 섬기고 입신하는 것이다”고¹⁴⁾ 했듯이 孝는 가정윤리에서 나아가 사회윤리 정치윤리까지 확대된 것이다. 집안에서의 孝悌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우호, 군주에 대한 충성 등에 대한 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중 일반민의 신분인 자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군주에게 복종하고 관리가 된 자는 군주에게 충성하고 조상의 威光을 빛낼 수 있었다.

3. 德을 통한 품성 수양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사람을 배양할 것인가? 이는 예나 지금이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고대 명문가에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가정교육의 지침서인 家訓에서 德을 통한 품성 수양을 중시하였다. 명문가의 가정에서 내려오는 家訓 중에서 德을 통한 품성 수양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정교육을 인생의 첫 수업이 시작되는 것으로서 도덕인격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4) 《孝經·開宗明義章》: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德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갑골문에서 발견되는 德에 해당하는 글자는 ‘𠄎’이라고 보고 있다. 德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은 《說文解字》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德(德)은 ‘오름(升)을 지칭하고, 彳과 惠(소리부)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¹⁵⁾ 그리고 ‘惠(惠)으로 풀이한 곳에서는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며, 안으로 자신에게 얻은 것’(外得於人, 內得於己)이라 하여, 直과 心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¹⁶⁾

처음에 德에는 도덕적인 함의가 없었다. ‘德’은 西周에 이르러 비로소 중요한 도덕규범으로 출현했다. ‘德’의 탄생은 周初에 ‘天命’에 대한 회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商代에는 천신과 조상신이 혼합되어 하나였다. ‘下帝’는 ‘上帝’의 명령을 따랐는데, 자손이 조상을 계승하는 것에 해당했다. ‘上帝’는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주재하며 ‘下帝’도 물론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주재할 수 있었다. 상말의 紂王은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여 따르지 않아 결국 商의 멸망을 초래했다. 주나라가 상대를 정복한 후 물론 천신을 자신이 천하를 통치하는 신학의 근거로 삼았다.¹⁷⁾

德이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 이후, 고대 가정교육에서 ‘德’을 立身과 揚名의 근본으로 보고 德을 통한 품성 수양을 강조하였다. 특히 《論語》에서는 德을 유가의 핵심적 가치인 仁을 행하기 위한 細目으로 보았다. 공자는 일찍이 仁에 대해서 그의 제자 자장에게 다섯 가지 德을 세상에 행할 수가 있으면 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다섯 가지 德을 공자는 첫째, 공소한 태도를 가질 것(恭) 둘째, 마음을 관대하게 가질 것(寬) 셋째,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게 할 것(信) 넷째, 사물을 처리하는 데 민첩하게 할 것(敏), 다섯째, 은혜를 베풀 것(惠) 이라고 했다. 즉 공손하면 남에게 경멸받지 않는 것이요, 관대하게 마음을 가지면 인망을 얻을 수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

15) 《說文解字》 <彳>部. “德, 升也. 從彳, 惠聲.”

16) 《說文解字》 <心>部. “惠, 外得於人, 內得於己也. 從直心. 𠄎 古文.” 金亨中, <《論語》의 ‘德’개념 고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中國學論叢》 第32輯, 2011, 295쪽 참조, 재인용.

17) 沈善洪·王鳳賢, 앞의 책, 61쪽 참조.

는 것이요, 일에 민첩하면 공(功)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은혜를 베풀면 사람을 잘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였다.¹⁸⁾

중국전통문화에서는 德 수양을 중시하고 천자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修身의 근본으로 삼았다. 家訓에서 수신은 성인에 이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修身의 근본원칙은 修德이다. 家訓에서 修德을 핵심으로 수신의 규범이 열거되었다. 예를 들면 克己敦行, 清廉自修, 謹言信行 등이다. 복잡한 사회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만든 五倫도 내적으로는 개인의 수양을 쌓고, 외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었다.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러한 도덕적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德은 개인적으로 사람이 서는 근본이고 입신의 근본이다. 나아가 이것은 가정과 사회를 존속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유지해주는 윤리질서와 예법의 기초다. 그래서 宋代의 司馬光은 《家範》에서 “무릇 사람 손톱의 날카로움은 호랑이나 표범에 미치지 못하고, 육체적인 힘의 강함은 곰이나 큰곰에 미치지 못하며, 분주함은 고라니와 사슴에 미치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높이는 제비와 참새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 여러 사람의 역량에 기대어 외환을 제어하지 않으면, 기타 동물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들에게 예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들에게 부자와 형제가 친애해야함을 알게 했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면,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그 조상을 사랑하면, 그 종족을 사랑할 줄 안다. 이는 마치 가지와 잎이 뿌리와 나무 기둥에 기대있는 바와 같고, 손과 발이 몸과 머리에 이어진 것과 같아 분리하려해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무리들로 하여금, 그 조출하고 산뜻한 체계로서 영화를 보게하지 아니하겠나! 이에 실재적으로 서로 더욱 의지하고 도움으로서, 외환을 막기를 바란다(夫人爪之利, 不及虎豹; 膂力之强, 不及熊羆; 奔走之疾, 不及麋鹿; 飛颺之高, 不及燕雀. 苟非群聚以御外患, 則反爲异類食矣. 是故聖人教之以禮, 使之知父子兄弟之親. 人知愛其父, 則知愛其兄弟矣; 愛其祖, 則知愛其宗族矣. 如枝葉之

18) 이민수역, 《孔子家語》, 을유문화사, 2003, 49쪽 참조.

附於根干，手足之系於身首，不可離也。豈徒使其粲然條理以爲榮觀哉！乃實欲更相依庇，以捍外患也)”고 하였다.

曾國藩(1811-1872)은 품성교육의 일환으로 修德을 중시하였다. 그는 《日課四條》에서 “일일 신독은 마음이 평안하고 스스로 닦는 도이며 양심에 어지러움이 없다(一日愼獨則心安，自修之道，莫難於養心)”고 하여 愼獨, 生敬, 求仁, 習勞를 수신의 四條로 생각하였다.

품성교육은 자녀의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됨’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高攀龍(1562-1626)은 《家訓》에서 “사람이 천지간에 입신하고, 오로지 사람됨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질박하지 않다(吾人立身天地間，只思量作得一個人，是第一議，余事都沒要緊))”고 생각하였다. 鄭板橋(1693-1765)도 《鄭板橋集》에서 “독서함으로써 벼슬을 얻어 관직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작은 일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讀書中舉中進士做官，此是小事，第一要明理做介好人)”고 하였다.

이처럼 품행의 확립은 사람됨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래서 많은 家訓에서는 품행과 관련된 조기교육을 중시하였다. 顏之推는 《顏氏家訓·教子》에서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품성을 길러야 한다며 조기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는 “내가 세상 사람을 보니 가르침은 없이 사랑만 있어 매양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음식과 행동에 하고 싶은 바대로 마구하게 하며 훈계해야 할 것은 도리어 장려하고, 꾸짖어야 할 것은 도리어 웃어넘긴다. 그리하여 자녀가 자라서 나름대로 식견이 생길 때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 교만함이 이미 습관이 되어 부모가 그제야 다시 제재를 가하고 죽도록 매질을 한다고 해도 위엄이 없게 되며 분노만 날로 늘어나고 원망을 증가시켜 성장해서는 끝내 悖德하게 된다. 공자는 ‘어릴 때 형성된 것은 천성과 같고, 습관에 의해 완성된 것은 자연처럼 된다’라 하였다. 또 속담에 ‘머느리가 처음 왔을 때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은 갓난아이일 때 가르쳐야 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도다”고¹⁹⁾ 하였다.

19) 《顏氏家訓·教子》: 吾見世間，無教而有愛，每不能然；飲食運爲，恣其所欲，宜誠翻獎，應

옛날에 귀족 자녀의 경우 전문적인 保傅이 있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顏之推는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을 강조하였다. 어려서 만약 천성이 있다면 어머니의 교육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顏之推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顏氏家訓·勉學》에서 “사람이 태어나 어릴 때에는 정신을 오로지 하여 날카롭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사려가 산 일해진다. 진실로 모름지기 일찍부터 가르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²⁰⁾ 했다. 그는 자신이 독서한 예를 들어 “나는 7세 때 《靈光殿賦》를 외워 오늘에 이르도록 10년에 한 번만 보아도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가 넘어서 외운 바의 경서는 한 달만 던져두어도 곧바로 黃蕪한 지경에 이르고 만다”고²¹⁾ 했다. 또 “어려서 배우는 것은 마치 해가 낮을 때의 빛과 같으나 늙어서 배우는 것은 마치 촛불을 잡고 밤에 걷는 것과 같다. 그렇다 해도 까막눈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보다 낫다”고²²⁾ 했다. 顏之推는 어려서의 배움은 마치 해가 낮을 때의 빛에 비유하며 자손들이 빛나는 태양이 되기를 격려했다. 고대에 조기교육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글자 익히는 것 및 독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 특징을 벗어나서 진행하였다. 많은 교육가들이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각 단계의 품성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덕을 통한 품성수양의 실천은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중시되었다. 전통유학에서 제창하는 이른바 修身, 齊家, 治國平天下는 일종의 德을 통한 품성수양의 실천이었다. 여기에서 ‘修身’은 개인지식의 축적과 품성의 수양을 중시하는 것이다. ‘齊家’는 주로 가정구성원간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 가장이 주요 책임을 맡는다. ‘治國平天下’는 사회고위 통치자의 일에 속하는 것이다. 가

訶反笑, 至有識知, 謂法當爾。驕慢已習, 方復制之, 捶撻至死而無戚, 忿怒日隆而增怨, 逮於成長, 終爲敗德。孔子云: 「少成若天性, 習慣如自然」是也。俗諺曰: 「教婦初來, 教兒嬰孩。」誠哉斯語!

20) 《顏氏家訓·勉學》: 人生小幼, 精神專利, 長成已後, 思慮散逸, 固須早教, 勿失機也。

21) 《顏氏家訓·勉學》: 吾七歲時, 誦《靈光殿賦》, 至於今日, 十年一理, 猶不遺忘; 二十之外, 所誦經書, 一月廢置, 便至荒蕪矣。

22) 《顏氏家訓·勉學》: 幼而學者, 如日出之光, 老而學者, 如秉燭夜行, 猶賢乎瞑目而無見者也。

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가정 내부 구성원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사회의 조직에서 이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각 가정의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전체 사회상황의 안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전통 유학에서 가정생활을 중시하고 가정 내부 질서와 가정성원의 덕을 통한 올바른 품성 함양을 중시한 것은 사회의 요구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4. 立志를 통한 자아 확립

立志란 무엇인가? 立志는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뜻을 세운다”이다. 여기서 志는 전통문화 중 志向, 志趣로 설명할 수 있다. 立志는 사람됨의 근본으로 사람이 입신하는 정신지주로 지향이 없으면 인간은 훌륭한 인물이 되기 어렵다. 올바른 立志를 통하여 자신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立志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전하게 지지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생 또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방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立志는 家訓에서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작용으로 강조되었다. 李珣(1536-1584)는 《擊蒙要訣》의 <立志>장에서 “처음 학문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부터 세워야 한다. 즉 훌륭한 성인이 되리라고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는 안 된다. 평범한 사람과 훌륭한 성인은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은 똑같다. 물론 성격과 재능이 다르기는 하지만, 누구나 인간의 본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평범한 사람도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²³⁾ 했다. 栗谷은 처음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뜻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평범한 사람과 훌륭한 성인의 타고

23) 《擊蒙要訣》: 初學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清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 去其舊染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故孟子道性善, 而必稱堯舜以實之曰,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난 본성은 같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고대의 많은 家訓과 家誡에서는 立志를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뜻이 있고 고원하면 비로소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많은 가장들이 모두 자손들이 뜻을 세워 훌륭한 재목이 되고 부지런히 배울 것을 기대했다. 顏之推의 《顏氏家訓》 중 <教子>, <勉學> 두 편에는 특히 근면하게 열심히 배우고 뜻을 세워 재목이 되기를 바라는 중요한 의의와 방법이 담겨있다. 예를 들면 <勉學>편에는 힘든 과정에서도 독서를 하여 성공한 전형들이 제시되어 있어 자녀에게 모범을 삼도록 하였다. 그중 숭고한 뜻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원대한 뜻을 수립해야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이 닥쳐도 이를 이겨내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竹林七賢 중 한 사람인 稽康(223-262)은 《家誡》에서 “사람에게 뜻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고 하여 立志를 사람됨의 선결조건으로 보았다. 명대 楊繼盛(1516-1555)은 《楊忠愍公遺筆》에서 立志의 설립 여부는 개인의 성장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만약 초년기에 뜻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미천한 사람으로, 대중들 모두 천하게 여긴다(若初時不先立下之小人, 衆皆賤惡)”고 했다. 명대의 대 유학자인 姚舜牧(1543-1622)도 《約言》에서 “무릇 사람은 마땅히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일생이 줄곧 뜬구름 같다. 그러니 어찌 일에 임할 수 있겠는가?(凡人須立志, 志不先立, 一生總是虛浮, 如何可以任得事?)” 했다. 청대의 左宗棠(1812-1885)은 《左文襄公全集》에서 자식들에게 “독서는 사람을 만드니, 먼저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讀書做人, 先要立志)”고 말하였다. 이처럼 사람이 뜻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 목표에 이르러 신념과 동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통 家訓에서 立志는 인격수양의 핵심이자 사람이 되기 위한 근본이었기에, 자손들에게 立志를 제창하며 중시하였다.

올바른 뜻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정교육서에는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孝悌를 통한 체계질서의 확립과 德을 통한 품성 수양, 立志를

통한 주도적 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진행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첫째, 앞서 초기 교육에 대하여 언급했듯이, 어려서부터의 교육을 강조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서부터 올바른 사람됨의 관념을 심어주어야 올바른 뜻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명대의 吳麟徵(1593-1644)은 《家誠要言》에서 “무릇 사람이 유아시기에 올바른 뜻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욱 어려워진다(凡人幼兒時不引得正, 後便難了)”고 했다.

둘째, 크고 높은 뜻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諸葛亮(181-234)은 《誠外擗書》에서 외손자에게 “무릇 뜻은 고원해야 한다(夫志當存高遠)”고 하였다. 고원에 이르러는 지향은 반드시 선현을 흠모하고 선현을 학습하며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의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반적인 위치에 머무르며 행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誠子書》에서 “담백하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멀리 생각 할 수 없다(非淡泊無以明志, 非寧靜無以致遠)”고 했다.

셋째, 勉學을 강조하였다. 배움은 뜻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크고 올바른 뜻으로 키워 나가는 주요 요소가 된다. 더불어 이러한 배움을 통한 立志는 자기 주도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면학은 중국 고대 家訓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孔子家語》에 일찍이 이 천 여년 전 중국의 공자는 아들 白魚를 교육시킴에 “군자는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君子不可以不學)”고 하여 아들이 학문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외면과 내면의 수양을 중시하였다. 한나라 고조 유방은 어렸을 때 학문을 하는 기회를 놓쳐 진시황이 분서갱유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심리적으로 기뻐했다. 그러나 황제가 된 후 불학의 고통을 느끼고 그 아들에게 면학에 힘쓸 것을 장려하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현이 아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능히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고²⁴⁾ 하였다. 諸葛亮은 《誠子書》에서 아들을 훈계하였다. “배움은 반드시 마

음이 안정되어야 하며, 재주는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발전시킬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夫學須靜也 才須學也 非學無以廣才, 非志無以成學)”고 했는데, 역시 立志는 勤學으로 인재가 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顏之推는 4대에 걸쳐 관직에 임했던 사람이다. 그는 관직에 임하면서 사대부 자제들이 학문을 하지 않고 나태해짐에 비극적인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그는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顏氏家訓》에서 면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말하였다. <勉學>에서 “무릇 육경의 가르침에 밝고 백가의 책을 섭렵하기는 하였으나 능히 德行을 증익시키거나 품속을 돈독하게 하지 못한다할지라도 하나의 기예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자질로 삼을 수는 있는 것이다. 부형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을이나 나라라는 것도 언제나 보호해 줄 수 없게 되면 의당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따름이다. 속담에 ‘재산을 천만금 쌓아 놓는다고 해도 자기 몸에 하찮은 기능 하나 있느니만 못하다’고 하였다. 그 기능 중에 쉽게 익힐 수 있으면서도 가히 귀히 여길 바로서 독서를 넘어서는 것이 없다”고²⁵⁾ 했다. 顏之推는 이처럼 시종 勤學과 勉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명대의 鄭曉(1499-1566)가 《訓子語》에서 “큰 뜻도 재능이 없으면 성취하지 못하고, 큰 재능도 배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大志非才不就, 大才非學不成)”도 바로 이러한 도리이다. 각 개인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반드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학습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의문점을 해결해야 지식을 획득하고 재능이 증가하여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

넷째,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좋은 뜻을 세우고, 勉學을 하기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다. 그래서 각 조대의 각종 家訓에서는 독서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명대 龐尙鵬(1524-1581)이 지은 《方氏家訓》에서는 자손을 교육함에 “學貴變化氣質, 豈爲獵章句”라고 하였다. 즉 독서란 기질을 변화시키고 성

24) 《禮記·樂記》: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25) 《顏氏家訓·勉學》: 夫明六經之指, 涉百家之書, 縱不能增益德行, 敦厲風俗, 猶爲一藝, 得以自資, 父兄不可常依, 鄉國不可常保, 一旦流離, 無人庇蔭, 當自求諸身耳. 諺曰: 「積財千萬, 不如薄伎在身。」伎之易習而可貴者, 無過讀書也.

정을 도야하는 것이며, 장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봉록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서는 이러한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修身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강조하였다. 수신은 실천에 있다. 실천은 반드시 독서로 명리를 알아야 한다. 역대 家訓에는 모두 독서를 사람됨의 중요한 것으로 삼았다. 성인 공자는 아들에게 시, 예를 가르쳤다. 《論語·季氏》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게 없고, 예를 배우지 않으면 더불어 설 수 없다”고²⁶⁾ 했다. 三國時期의 王修(생존년미상)는 품덕이 고상했는데, 아들을 가르침에 “반드시 책을 읽고, 아울러 사람됨을 몇 배 공부해라(必讀書, 併學做人)”고 하였다. 대문학가 한유는 자식을 가르침에 “사람이 고금의 일을 통달하지 못하면 말, 소에게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人不通古今, 馬牛而襟)”고 하였다. 결국 독서의 목적은 수신을 하여 사람 됨됨이를 양성하는 것이다. 清代의 康熙 황제는 비록 천자가 되었지만 《廷訓格言》에서 자신의 자제들에게 많은 독서를 친히 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자신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황제들에게 독서는 명리를 알 수 있는 요체라고 하고 “무릇 사람이 덕을 닦고 학문을 쌓는데, 그 모두가 독서에서 시작된다(凡人進德修業, 事事總讀書起.)”라고 했다. 또 몸소 가르쳤다. 家訓에 옛날 사람들은 독서를 하여 학문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도리를 말하고, 덕을 쌓는 일에 힘쓴다(說道理, 務德業)”, “단지 공명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併不只是爲功名)”고 하였다. 송대의 陸游는 《冬夜讀書示子聿八首》에서 “책에서 얻은 지식은 깨닫는 바가 적으니 학문이란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紙上得來終覺淺, 絕知此事要躬行)”고 하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清代의 左宗棠(1812-1885)은 《左文襄公全集》에서 “독서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讀書要目到, 口到, 心到)”, “순서대로 차차 나아가되 속독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要順序漸進, 熟讀深思)”고 자녀를 훈계하였다.

다섯째,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균형 잡힌 가치관을 갖고, 立志한 바를 올바르게 지켜나감과 동시에 덕을 배양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근검절약

26) 《論語·季氏》: 不學詩, 無以言, 不學禮, 無以立.

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가정교육에서는 자녀에 대한 근검절약을 강조하였다. 顏之推는 《顏氏家訓》에 어른의 생활에 있어 “배풀되 사치를 부리지 아니하고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를²⁷⁾ 강조하였다. 근검절약은 덕을 배양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기도 했다. 그래서 ‘검소함으로 덕을 배양하고(儉以養德)’, ‘검소함에는 덕이 함께 한다(儉, 德之共也)’라고 강조하면서 근검절약을 통한 修德을 실행했다. 또한 근검절약은 가정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治家의 도로서도 작용하였다. 치가의 도는 가정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治家의 道는 주로 어떻게 가정관계와 가정의 일을 처리해야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가정관계에서 가정 먼저인 것은 부부관계이다. 司馬光(1019-1086)은 《家範》에서 “부부의 도는 천지의 대의요, 풍기의 본원이다(夫婦之道, 天地之大義, 風氣之本原也)”라고 제창한 것은 부부화순을 말한 것이다. 지아비는 의를 지키고 색을 보대 의를 잃지 말아야 하며 부귀가 있는 것에 倫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아내는 근검절약해야 하는 것 등이다. 《顏氏家訓》 <治家>에서는 만약 “남편이 의롭지 못하면 아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²⁸⁾ 했다. 옛 사람들은 개인이 근검절약하면 반드시 자신을 구속하고 사사로운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비록 사회에서 관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로 가정이 사치하면 관직에 나아가서도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근검절약하는 품덕을 배양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서부터 衣, 食, 住, 行 등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시작해야 한다. 朱柏慮(1617-1688)는 《治家格言》에서 “죽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이라도 거처로 오게 된 것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여야 하며 반 오라기의 실과 반 조각의 천도 물건을 만드는 데는 어렵게 힘이 들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一粥一飯, 當思來處不易, 半絲半縷, 恆念物力維艱)”고 했다. 廬尚鵬(1524-1581)도 《廬氏家訓》에서 “孝, 友, 勤, 儉 네 글자는 입신하기 위한 제일가는 일이라 했다(孝友勤儉四字, 最爲立身第一義)”라고 했다.

27) 《顏氏家訓·治家》: 施而不奢, 儉而不吝.

28) 《顏氏家訓·治家》: 夫不義, 則婦不順矣.

5. 맺음말

교육의 시작은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가정교육이 기초가 되어 건전한 가풍과 좋은 법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것은 이른바 명문가의 이상이 되고 가족들의 생활신조로 전승되고 실천되었다. 家訓, 家書는 명문가에서 주로 행해졌던 가정교육의 내용을 담고 이들의 비법이 되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법으로 가장은 가족을 이끌고 가정에서의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였다. 중국 명문가 집안에서는 家訓을 통해 자손의 심신수양과 학습을 지도했다. 명문가 나름대로의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이라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자립,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국과 관련되어 자녀의 교육은 개인의 일에 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명문가의 가정교육을 엿볼 수 있는 家訓, 家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전통 家訓을 보면 시종일관 유가문화를 중심으로 유가문화의 발전맥락과 같이한다. 先秦時期的 家訓은 주로 孔子, 孟子를 대표로 하는 유가 성현의 어록에 나타났는데 《易》, 《詩》, 《禮》, 《書》, 《春秋》, 《論語》, 《孟子》, 《孝經》과 《大戴禮記》 등의 고전에 나타나 있다. 漢代 이후 유가문화는 전통문화의 주류가 되고 家訓의 개념도 점점 명확해졌으며 완성된 많은 家訓이 나타났다. 특히 魏晉隋唐時期는 家訓 내용의 전형과 대표 서적이 나타났는데, 南朝北齊 사람인 顏之推가 편찬한 《顏氏家訓》이다. 이것은 중국 전통사회의 첫 번째 家訓저작이다. 明清時期에 이르러 중국 전통사회는 흥성과 더불어 쇠락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유가문화의 체계적인 전형과 완비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家訓이 나타났다. 家訓문화의 내용은 점점 세밀해졌으며 가정관계, 개인생활의 각 영역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 가족화, 가법

화, 조례화되어 가족내의 성문법이 되었다.

家訓에는 인생 다방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종 유가의 修齊治平학설을 근본으로 하여 유가의 三綱五常, 孝悌忠信觀念을 핵심으로 仁義孝悌, 中庸의 유가정신을 담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전통사회의 가정영역, 가정층면에서 유가문화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중국의 종법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윤리도덕과 행위규범이 되고 가정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었다.

명문가 가정교육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바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그 기본 내용은 먼저 가정에서 孝悌교육을 강조하고 사람됨의 기본으로 品性教育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立志를 굳건히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근검, 절약, 면학에 힘쓸 것 등을 강조하였다. 宋代 이후 많은 가족의 家訓에는 이러한 미덕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이를 가족원에 대한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훌륭한 인품의 함양을 바탕으로 경작과 독서에 전념하고 근면, 검약한 생활태도를 견지하며, 사회의 기풍을 바로잡고 풍속을 교화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가족교육의 최대 목표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궁극적으로 지배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중국 사회를 이끈 동력이 되어 전통 미덕으로 정착·계승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명문가의 가정교육은 과거 한국과의 교육교류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것은 첫째, 지식에 앞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예의범절에 대한 교육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의 가정은 형식적·비형식적으로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터전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서를 다듬으며, 부모를 본보기로 삼아 인격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현대 사회에 들

어서면서 가정의 인성교육에 대한 기능 약화가 비판받고 문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측면은 가정만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하고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명문가의 가정교육은 바로 학문 중시와 자녀들의 재능 계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에서도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낸 西厓 柳成龍은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의 학문 수양을 점검하고 따끔하게 조언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특히 자녀들이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던 시절 보낸 편지에는 그의 자녀들이 과거 급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몸과 마음을 닦는 공부로써 독서를 강조하였다. 그 외 유배지에서도 편지로 자녀교육에 애를 썼던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 등은 재능을 보이는 후손들에게 스스로 기회를 부여하여 전수하는 전통으로 그 명맥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명문가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현재 못지않다.

셋째, 명문가의 교육열을 꼽을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좋은 스승에 대한 갈망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과거 명문가에서는 자녀들이 좀 더 학식이 있는 스승의 제자로 들어가 가르침 받기를 원했고 실제로 유명한 스승 아래에는 그들의 제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명문가의 자녀들이 모여들었다. 명문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이런 욕구를 구체적·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명문가 가정의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높고,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두지 않았다. 가정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녀교육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최근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다. 자녀를 엄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위업이며, 자녀가 아버지의 엄격함을 오해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다.

넷째, 도덕, 인간성, 예의의 대한 강조다. 학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각각 ‘孝悌’, ‘德’을 강조하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품성 함양에 대해 강조하

었다. 오늘날 자녀의 인격형성이나 가치관의 확립, 정신적인 성숙의 측면에는 둔감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단절 및 의식교류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은 눈여겨볼 만하다.

오늘날 부모들의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한 자녀 가정 및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이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학교로 전가되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명문가의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오늘날 가정교육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자녀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또한 부모 및 교사에게 자녀 및 학생을 가르치는데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十三經注疏》(標点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漢]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2.
- [清] 鄭板橋, 《板橋家書》, 學林出版社, 2002.
- 高時良, 《中國教育史綱》(古代之部), 人民教育出版社, 1993.
- 김영수편저, 《명문가의 자식교육》, 아이필드, 2005.
- 金鍾權編著, 《名家的 家訓》, 집문당, 1986.
- 來新夏·徐建華, 《中國的年譜與家譜》, 商務印書館, 1997.
- 廬正言, 《中國歷代家訓觀止》, 學林出版社, 2004.
- 馬鏞, 《中國家庭教育史》, 湖南教育出版社, 1997.
- 毛禮銳·瞿菊農·邵鶴亭編, 《中國古代教育史》, 人民教育出版社, 2001.
- 柏楊, 《柏楊家書》, 春風文藝出版社, 2003.
- 徐少錦·陣延, 《中國家訓史》, 陝西人民出版社, 2003.
- 沈善洪·王鳳賢, 《中國倫理學說史》(上), 浙江人民出版社, 1985.
- 閻愛民, 《中國古代的家教》, 商務印書館國際有限公司, 1997.

- 吳樵子, 《曾國蕃家書》, 京華出版社, 2003.
- 王利器撰, 《顏氏家訓集解》(增補本), 中華書局, 1996.
- 王長金, 《傳統家訓思想通論》, 吉林人民出版社, 2006.
- 王兆祥, 《家書擷金·家書篇》, 山西人民出版社, 2003.
- 喻岳衡, 《歷代名人家訓》, 岳麓書社, 1991.
- 이민수 역, 《孔子家語》, 을유문화사, 2003.
- 李珥, 이민수 역, 《擊蒙要訣》, 을유문화사, 2003.
- 陳書良, 《鄭板橋家書評點》, 岳麓書社, 2004
- 金亨中, <《論語》의 '德' 개념 고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中國學論叢》 第32輯, 2011.
- 段文閣, <古代家訓中的家庭德育思想初探>, 《齊魯學刊》 第4期, 2003.
- 付淑榮, 王運, <家訓與我國古代家庭教育>, 《石家藏學院學報》 第4期, 2007.
- 王旭玲, <中國傳統家訓文化的現代思考>, 《東岳論叢》 第24卷第4期, 2003.
- 劉劍康, <論中國家訓的起源>, 《求索》 第2期, 2000.
- 이경자, <漢代의 孝敎政策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제10권 2호, 2005.
- _____, <漢代의 孝敎教育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教育問題研究》 第22輯, 2005.
- 蔣海漁, <中國古代家訓教育>,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第21卷第10期, 2009.
- 조용현,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2002.
- 曾凡貞, <中國傳統家訓起源探析>, 《廣西右江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11卷第4期, 1998.
- 朱小理, <中國傳統家訓中的德育精華>, 《江西教育科研》 第10期, 2005.
- 包東坡, 《中國歷代名人家訓精華》, 安徽史藝出版社, 2000.

< 中文提要 >

本論文考察從先秦到清末在名人家的家教怎麼推進。‘名人家’是指從過去到現在為止保持着名人家的名聲, 保留着對子女教育的秘訣的家門, 名聲是不久但保着通過特設的子女教育方法有价值的成就或有勢力的家族。這家族的家教的內容傳到用家訓和家書。在家訓和家書主

要重視的內容是先強調着孝悌教育，以德爲主的品性教育，立志教育等。還重視着勤儉節約，勉學等對日常生活中的道理。通過名人家的家教第一，強調人的道理是什麼和禮儀規矩的教育，第二重視着勉學和啓發子女的才能，第三，可知名人家的教育熱。他們重視著對學問方面的成就但更強調用‘孝悌’，‘德’，‘立志’培養爲做人品性。他們的教育給我們堪爲典范在孩子的價值觀念逐漸弱化，父女之間的對話斷絕和互相交流的較小的情況下。

關鍵詞：名人家，家教，家訓，家書，孝悌，德，立志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 15.	2012. 2. 6.	2012. 2. 20.	2012. 2. 25.	2012. 2. 29.